

# 이재명 “총선용 개각에 국정 표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CGV에서 열린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 참석해 영화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두번째줄 왼쪽부터 김부겸 전 총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이 대표,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사진공동취재단)

## 민주 최고위... 대통령 선거 집착 비판·민생 회복 전념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국정 동력을 온통 여당 줄 세우기, 내각 차출, 친윤(친윤석열) 사당화에 쏟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선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총선용 6개 부처 개각에 이어 급주 중 선거에 나설 다른 부처 장관들의 추가 교체도 단행된다고 한다”며 “내각의 마음이 이렇게 뒤흔어 가 있으니 물가가 잡히고 가계부채가 해결될 리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 사정은 더욱 참담하다”며 “집권 1년 7개월 만에 여당 지도 체제가 5번이나 바뀌었는데 비상사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 근원은 용산의 총선 집착, 선

거 ‘올인’ 때문”이라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파하게 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선출직 공직자”라며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축하할 일인데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투자를 약속했다는 ASML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재생에너지 부족을 향후 주요한 사업 리스크로 꼽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거부하는 에너지 섹터 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재생 에너지 탄압이 아닌 투자를 촉구한다”

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 토대를 허물 것이라 경계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꼭 필요하다면 권력기관의 특별비나 (대통령) 순방 비용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R&D 투자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청 앞 해병대원 순직 국정조사 촉구 농성장을 찾아 “국가의 부름을 받아 청춘을 바쳐 입대한 해병대원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다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명을 달리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사건의 원인과 경과를 분명히 밝히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 권위를 발휘해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하고 진상규명하겠다. 사망 경위 진상규명뿐 아니라 사건 은폐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尹, 총선위해 취임 석달 산자부장관 교체”

### 홍익표 민주 원내대표 “국격 추락 경질 대상에 꽃길 열어줘” 비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망 불안 해소 등 산적한 현안에도 오직 총선만을 위해 (취임) 3개월도 안 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 장관은 경질 대상인데 총선 출마를 위해서 꽃길을 열어주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방 장관을 향해 “3개월 동안 뒤흔었느냐”라며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고 참담한 국격 추락이 경험됐다.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확정돼서 한국자동차가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안덕근 새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프랑스판 IRA법과 관련해서 책임이

큰분”이라며 “그 사람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잘못을 한 사람을 더 큰 잘못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 준 건가. 책임 있는 사람에게서 더 특혜와 권한을 많이 부여해서 더 좋은 자리로 보내는 게 인사원칙인가”라며 “윤 대통령님, 선거보다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주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하나같이 부적격자를 보내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하니 국회에 대한 고문인 건지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金 “더 큰 행보를”...李 “백지장도 맞들어야”

### 이재명 대표-김부겸 전 총리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서 만남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CGV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 행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전 총리는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진 정치적인 흐름인가”라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역사를, 그걸 더 큰 물결기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도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 3명의 연대 가능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화 감상 소감으로 “참 먹먹하고 숙연해진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도 저런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질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영화 시차 전 기자들에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척해오신 여러 민주주의의 길을 제가 존경하는 김부겸 총리와 함께 잘 지켜나가고 노력하겠다”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

의와 민생경제 후퇴, 퇴행을 막는 것”이라며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계파 갈등 및 내부 파열음에 따른 원심력을 차단하기 위해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 연쇄 회동을 추진하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영화를 보고 나온 이 대표는 김 전 총리가 당부한 ‘더 큰 행보’ 등에 대한 기자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영화를 본 감상으로 “흑백 영상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우리 사회에 다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시사회에는 두 사람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와 국민의힘 조순진 의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의 옆자리에 앉은 권 이사장은 “이 대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의 소중한 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며 “(나는 이 대표에게) 앞으로 열심히 (D)와 같은 그런 과정을 밟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자리에 초대받았으나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오후 7시에 열리는 시사회에 참석하기로 해 이 대표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연합뉴스

## 민주 3호 영입인재 ‘경찰국 반대’ 류삼영

### 경찰대 4기 출신...국회서 영입식 “민주주의 회복위해 싸울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 경찰을 떠난 류삼영(59·사진) 전 총경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3호 영입 인재’로 투입된다.

류 전 총경은 18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지난 30년간의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 및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쿠데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박지혜 씨와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 씨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 무서운 정치권력에 맞서 국민의 경찰로서의 길을 제대로 가고자 했던 류 전 총경의 용기를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

치권력이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경찰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전 총경은 비례대표 및 지역구 등 출마 계획에 대한 기자 질문에 “구체적으로 출마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된 바 없고 결정된 바도 없고 결심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부산 출신인 류 전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반부패 수사대장 등을 거쳐 부산연계·부산영도·울산중부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올해 7월 정기 인사에서 경정급 보직인 경남청 112지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사실상 좌천되자 사직서를 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수목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